

연구 노트

2008년 여성가족패널조사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박수미 | 본원 연구위원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II

민현주 | 본원 연구위원

한국인물의 활동 기록을 통한 여성사 재조명 !

박미현 | 본원 행정3급

2008년 여성가족패널조사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박수미 본원 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2006년부터 여성의 생활세계와 가족의 구조 및 변화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전국 규모의 패널조사인 ‘여성가족패널조사(KLoWF: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y)’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8년 현재 3차년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조사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제활동 지위 변화와 가족생활과의 관계를 비롯하여, 가족과 관련한 가치의 변화, 가족관계의 변화, 가족과정(family formation process)과 이벤트의 변화, 가족구조의 변화를 횡단면(cross sectional)뿐만 아니라 종단면적(longitudinal)으로도 추적할 수 있는 방대한 자료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구축을 통하여 ‘여성가족패널조사’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이로 인한 일-가족생활 조화(work-family life balance), 일-가족생활 전환 실태(work-family life transition) 등을 파악함으로써 여성의 생활세계를 경험적으로 규명하고 우리 사회 가족의 현재와 미래를 전망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또한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중요한 사회적 화두가 저출산, 고령화, 보육, 일-가정 양립, 가족친화사회환경 등이라고 할 때 여성가족패널조사의 방대한 조사결과는 포괄적인 여성 및 가족정책 수립의 주요 기초 자료로 활용됨으로써 사회구성원들이 부모된 권리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조화롭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일조할 것이다.

여성가족패널조사의 조사대상과 추적원칙, 조사방식은 무엇인가?

여성가족패널조사의 조사대상은 전국 대표성 있는 표본에서 추출한 9,000가구 내 만 19세~64세 여성가구원 10,000명이다. 여성의 생애주기별 일-가정 양립 · 전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성 표본 10,000명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그만큼 여성들의 경제활동 유형이 다양하고 일-가정 전환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그밖에 한국여성의 삶을 전체적으

로 조망한다는 연구 목적에 부응하여 농가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한국여성의 포괄적인 생활세계를 파악한다는 점과 현실적 표본추출방안을 고려할 때 특정집단 과대표집은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일정한 조사주기에 특정집단에 대한 부가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여성가족패널조사의 추적원칙은 기본적으로 가구내 만 19세-64세 여성을 원표본(original sample)으로 하고 있다. 이 원표본을 중심으로 이들을 추적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들이 생애과정 속에서 형성하는 가구내 배우자는 적절한 시기에 조사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따라서 여성가족패널조사의 기본적인 추적원칙은 개인조사이다. 그러나 원표본이 속한 가구의 여성가구원이 해당 연령 19세에 진입하면 원표본으로 추가하여 추적 대상이 된다. 뿐만 아니라 원표본이 결혼, 이혼, 재혼 등으로 분가하여 새로 이뤄진 가구내에 조사적격대상 즉 만 19세~64세 여성가구원이 있으면 이들도 원표본과 동거하는 한에서 조사대상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간 경과에 따른 패널의 노후, 젊은 세대의 비율 감소, 패널 이탈 등에 따른 패널 규모 축소를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가족패널조사의 추적원칙은 기본적으로 개인조사이면서 동시에 가구조사의 성격을 지닌다.

여성가족패널조사의 조사방법은 컴퓨터를 이용한 대면면접조사(CAPI: 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방법이며, 2차년도 조사결과와 연동시키는 중단형 CAPI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2008년 여성가족패널조사 연구 내용

2008년 여성가족패널조사의 연구 진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2007년 실시된 1차 본조사 자료의 전문가용 자료 공개를 위한 준비작업이 완료된 상태이다. 이를 위해서 2007년 9월 1차 본조사를 실시하는 시기부터 동시에 데이터 클리닝 작업을 진행하여 논리적, 기술적 오류들을 점검, 보완하고 결측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재조사를 수행하였다. 여성가족패널조사자료 사용자를 위한 코드북과 유저가이드 등도 마련되었다.

2008년 패널포럼: 4회 개최

2008년에도 패널조사의 이해와 활용을 위해서 특별히 패널조사 분석방법에 대한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개최된 패널포럼은 다음과 같다.

▷ 1차 패널포럼:

‘다수준분석기법(Multilevel Analysis Technique)의 기본 원리와 사회과학에서의 응용(Ⅰ)’, 조영태 교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2차 패널포럼:

‘다수준분석기법(Multilevel Analysis Technique)의 기본 원리와 사회과학에서의 응용(Ⅱ)’, 조영태 교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3차 패널포럼:

‘Beyond individuals: the example of neighborhoods and health’, Diez Roux(University of Michigan, Pathology)

▷ 4차 패널포럼:

‘여성가족패널조사 1차년도 가중치 부여방법’, 강석훈 교수(성신여대, 경제학)

제1차 여성가족패널학술대회 개최

우리 연구원에서는 1차 여성가족패널조사결과를 가지고관련 연구자 및 학회 등과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여성인력과 가족에 대한 국내 최초의 대규모 조사이며 각 웨이브가 지속될수록 변화하는 여성과 가족의 실태를 파악하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자료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관련 연구자로부터 자료의 문제점과 한계를 파악하여 각 년도에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관련 학회와 공동으로 여성가족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2008년 제1차 여성가족패널학술대회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12월 4일(목), 오전 9시 ~ 오후 6시,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제1차 여성가족패널학술대회는 ‘한국사회학회’, ‘한국여성학회’, ‘한국가족학회’, ‘한국인구학회’, ‘한국가정관리학회’, ‘노동경제학회’ 등 6개 학회의 공동 후원으로 주최

된다. 2008년 9월 현재 다양한 전공분야에서 70 여 편의 논문이 응모되어 12개 세션을 구성한 상태이다.

또한 1차 조사결과 검토를 통한 2차 패널조사준비를 완료하였다. 이를 위해서 관련 연구자와 2차 조사 설문지워크숍을 진행하고 2차 설문지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차 조사 설문지를 최종 확정하였다. 1차 조사와 연계된 2차 조사의 CAPI 방식 설문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CAPI 설문지에 대한 예비조사도 실시하였다.

최종 확정된 2차 CAPI 설문지를 가지고 2008년 9월부터 12월까지 2차 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2007년도와 마찬가지로 2차 본조사와 동시에 데이터 클리닝 작업이 병행될 것이다.

2008년 12월에 2007년 1차본조사 결과에 대한 기초분석 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이며, 「여성가족패널 브리프」(반년간지)는 정기적으로 발간되고 있다. 그밖에 패널관리를 위한 패널소식지 등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있으며, 패널에 대한 이동 사항 확인 등 중간 점검을 위해서 패널의 이사, 생일 등에 선물을 보내고 있으며 정기적인 경품행사도 진행 중에 있다.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II

- 여성인력공급활성화를 중심으로 -

민현 주 본원 연구위원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활성화는 여성 개인의 노동성과 뿐 아니라 복지차원에서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여성 개인의 생애빈곤을 방지하고 독립된 경제 주체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가족차원에서는 고용 불안정성이 점점 높아져가는 최근의 노동시장상황에서 가구소득을 증대시키는 주요한 도구가 되는 것과 동시에 가정 내 여성의 상대적 교섭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저출산·고령사회의 인구학적 맥락에서는 향후 노동공급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으로 강조될 수 있다.

이렇듯 생애주기 동안 다차원적인 수준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여성의 경제 활동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서구선진국에서 주목하고 있는 주요한 노동시장 정책은 사회서비스 부문 여성고용확대전략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 뿐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고용둔화 현상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노동 시장참여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여성고용율의 증가는 대부분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다. 특히 서구 선진국들의 경우, 경제규모와 구조의 선진화를 경험한 시기를 전후로 하여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증가하였으며, 특히 사회서비스 분야에서의 여성고용은 크게 증가하였다. 사회서비스의 확대와 동 분야 일자리의 증가는 가정에서 여성이 주로 담당해 오던 돌봄노동을 사회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보다 많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점과 이들 분야 일자리가 여성친화적인 특성을 가짐으로 인해 여성들의 고용창출에 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최근 여성친화적인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확대되고 있는 일자리의 특성과 규모를 살펴보면 여성고용의 양적 확대와 고용수준의 질적 제고라는 정책적 목표달성에는 더 많은 노력과 투자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참여정부는 2007년부터 5년간 80만개의 사회서

비스 일자리 확충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일자리의 고용조건이 열악하고 인력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인프라 확보 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의 평균 임금이 전업종 평균임금의 약 60% 수준에 머무르는 열악한 노동조건과 파견직 형태의 불안정한 취업구조가 만연하다는 점이 가장 심각한 고용상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일자리 수준의 질적 제고를 달성하는데 직면하고 있는 또 다른 문제점은 일자리 공급의 안정성 확보이다. 사회서비스의 확대가 수요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이루어져야만 사회서비스에 대한 안정적 수요를 확보하여 인력공급을 보다 안정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제까지 추진되어 온 정부주도의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정책은 취약계층에서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이들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요자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최근 강조하고 있는 시장중심의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수요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과 유형을 차별화하여 이들 서비스에 대한 시장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유지 및 증가시키는 것이 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의 지속적이면서 안정적인 공급을 유지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들 부문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고용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위한 정책의 한 축으로서 사회서비스 분야로의 여성인력 진출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제안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의 배경에는 전통적 가족의 역할, 특히 가족 내 여성의 역할로 전가되었던 돌봄(care)의 기능을 보완·대체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의 제도화 및 활성화와 사회서비스를 통한 사회적 보호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직간접적으로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우리가 지향하는 여성고용에 관한 논의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다만 사회서비스의 개념적 포괄성을 고려하고, 일자리의 여성친화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서비스 분야 중에서 재가보육서비스, 가사서비스, 그리고 간병서비스 일자리에 집중하여 논의한다.

본 연구는 여성고용확대 방안으로서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로의 여성인력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연구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첫째, 여성고용확대 및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사회서비스 분야의 증대와 여성고용의 확대 갖는 관련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

인력의 인구학적 특성 및 근로특성을 분석한다. 또한 해외선진국의 동향을 분석하고, 해외 선진국의 사례분석에서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사회서비스 확충, 그리고 사회서비스 확충과 여성일자리 확대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둘째, 가사, 간병 및 재가 돌봄서비스 여성인력의 근로실태를 설문조사와 집담회(FGD)를 통하여 현장근로자들의 근로경험과 요구를 심층적으로 파악한다. 특히 이들 일 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근로자들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며 일용직 형태의 근로조건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고용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요구에 대한 심층적 분석에 초점을 둔다.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근로자의 제도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제안한다. 본 연구의 대상인 가사, 간병 및 재가보육 서비스 종사 근로자들은 대부분 여성근로자들이 고용형태는 비정규직이다. 이들 여성근로자들은 근로조건과 근로계약의 비공식적 성격으로 인하여 제도적 보호의 틀 밖에 놓여 있으며, 고용불안을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들 일자리의 이러한 비공식 특성에 주목하여 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 제도화를 위하여 현행 고용방식과 법을 검토하고 현재 동 부문의 노동시장 구조와 여건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현재 시장에서 실패가 일어나고 있는 부문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정부의 정책적 요구가 발생하는 지점을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 아울러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편입을 통하여 정부의 근로복지 체계로 동 근로자들을 포괄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모색해보기로 한다.

한국인물의 활동 기록을 통한 여성사 재조명!

- 여성관련 지식컨텐츠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의 배경과 내용 -

박 미 현 본원 행정3급

여성관련 지식컨텐츠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업은 우리원 제11대 원장의 경영목표 가운데 “여성정책연구의 Knowledge Power 강화”의 세부 추진과제로 3년(2008년-2010년)에 걸쳐 수행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내용은 본원에 구축된 문헌정보 DB와 한국여성사지식정보시스템의 컨텐츠를 연계하고 타 기관에서 생산된 사료적 가치가 있는 여성관련 컨텐츠를 체계적으로 수집, 디지털화하여 아카이브(Archives)를 구축하는 것이다.

해방이후 한국 근대 여성사가 우리 역사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사료의 정리와 수집에 취약하고 여성사 자체가 주변사로서 역사가들의 주목을 받지 못해 충분한 연구와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런 면에서 해방직후 계몽운동과 정치활동, 여성단체활동, 여성권익향상운동에 뛰어든 여성들, 또 민주화 운동에 적극 참여했던 여성운동가들,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각종 법률 제정과 제도 마련에 헌신했던 여성들의 활동상과 사료(史料)들을 발굴하여, 한국 여성의 발전에 공헌했던 여성인물들의 기록 등 자료수집을 통한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이들 인물의 업적과 역할을 재인식하고, 당시의 사회상을 돌아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디지털 아카이브(Archives) 구축의 필요성

현재 한국 여성사 및 여성 인물자료의 상당수가 훼손되거나 유실되고 근대화 시기의 산 증인인 여성인사들의 사망으로 인해 시대적 증언자료(구술사 포함)의 수집이 어려워지고 있다. 여성과 관련된 역사적 기록은 그 시대의 사회, 정치, 문화를 반영하며 역사를 연구하고 해석하는데 있어 사료(史料)로 활용될 가치가 충분함에도 이를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여성에 관한 지식정보 · 기록 자료가 현재 국내

에서 어떻게 수집, 보존되고 나아가 어떻게 서비스 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 파악과 체계적인 자료 수집 및 운영 체계 구축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이 밖에도 여성 및 여성사 관련 분야 국가 연구개발 정책수립 시 의사결정 또는 참고자료로 활용하거나 학자 및 연구기관의 연구 기반 조성과 한국 여성에 대한 연구 활동 및 학문 발전 측면에서 우리나라 여성의 과거와 현재를 나타내는 지식자산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여성정보 전문 아카이브의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주요 사업내용

여성관련 지식컨텐츠에 대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사업의 주요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업 원년인 2008년도는 <아카이브 구축 초기 단계>로, 내부 사업기획 및 기본 인프라 조성을 위한 중장기 ISP(정보전략계획)를 수립하고 여성 관련 유관기관 디지털 자료의 수집채널을 확보하며 수집할 아카이브 대상 자료 및 디지털화를 위한 선정 기준(안)을 마련한다. 또한 ISP 수립 내용에서 우선적으로 해외 여성관련 아카이브 구축 사례 조사(네덜란드 IIAV 외 4개국 12개 기관)를 실시하였고, 사업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원내 행정자료의 목록화, 여성계 저명인사의 소장 자료 수집과 구술사 자료에 대한 텍스트화 작업이 계획되어 있다.

2차년도인 2009년에는 <기능 개선 단계>로 ISP 수립 시 도출된 디지털 아카이브 조직구성 및 운영에 대한 연구와 대상자원 발굴 및 수집체계 구축 방안, 주제별 중점 디지털자원 선정 방향 연구, 국내외 여성관련 디지털자원 소장 기관 조사, 수집자원 분류체계 개발, OASIS 참조모델 구성 및 아카이브 적용 프로세스 개발, 디지털 아카이브 표준 업무 프로세스 개발, 매체별 유형별 디지털 자원 관리방안 수립 등 향후 예산지원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하여 추진될 예정이다.

3차년도인 2010년에는 <운영기반 고도화 단계>로 원내 생산 자료의 표준 납본 프로세스 모형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여성관련 수집 자원 디지털화 사업과 국내 여성정책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방안 수립, 디지털 납본 및 관리 시스템 개발, 고성능 자동 수집기(웹로봇) 및 관리 툴(tool) 개발(이하 2009년 계속사업)이 계획되어 있다.

2008년 현재 1차년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기 수집된 녹취자료에 대한 녹취록을 작성 중이다. 녹취대상 인물 선정의 기준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해

방 후부터 현재까지 정책결정분야(국회의원, 장관 등)나 여성단체 활동에서 두각을 나타낸 선각자적 인물, 둘째 1940년(68세)이전 출생자로 자료의 소실이 우려되어 자료수집이 필요한 인물로 규정하였다. 이에 부합하는 대상인물을 1차적으로 선정했으며, 대상인물은 예산 및 분야의 확대 등의 여건에 따라 추가될 수 있다.

또한 아카이브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4월 18일부터 25일에 걸쳐 <개원25주년 기념 여성아카이브 기획 전시회>를 가졌다. 이는 “전시”라는 하나의 이벤트를 통해 일반인에게 아카이브나 사료(史料)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높이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계획되었다. 전시회에서는 수십년에 걸쳐 수집 · 관리된 여성인물들의 소장 사료와 1983년 개원한 본원(KWDI) 자료들을 선 보였으며, 전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문으로 보는 KWDI 발자취
- KWDI 사료 및 발간물 창간호
- 인물 및 행사 사진전
- 1950년대 불거리(영화포스터, 잡지)
- 여성단체 뉴스레터 창간호 모음
- 책으로 묶은 여자대학교 · 여성단체사
- 여성계 인사 기탁자료
- 여성관련 홍보 브로셔

기대효과

총 3년의 사업 수행을 통한 기대효과는 첫째, 여성정책 사료(史料) 수집을 위한 여성단체, 여성관련 NGO 및 여성 교육기관, 여성정책기관 간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함으로써 연구자와 현장활동가들의 여성정책 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둘째는 여성관련 지식컨텐츠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을 통하여 국책연구기관간의 공동 활용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기관별, 지역별 중복 구축에 따른 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는 본원이 한국여성 관련 지식정보에 대한 검색서비스 및 디지털 원문을 제공함으로써 정치 · 사회 · 문화 · 교육 등의 분야에서 한국 여성에 대한 국가차원의 ‘Knowledge Bank’로서의 대표성이 더욱 공고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